

제1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6. 6. 14(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남효, 김정연, 박민정, 박춘호, 오상욱
이낙경, 이종건, 이해경, 전우태, 정영훈, 조숙의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7건 15작품(조각 15)
[신규 4건, 재심 2건, 위치변경 1건]
- ◆ 결 과 : 승인 9 작품, 부결 6 작품
- ◆ 회의록 확인 : (서명), (서명)

□ 위원 발언 내용

- 금일 심사위원 12명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.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. 그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개별 채점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 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심의도서 안에 설명을 보시면 도장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. 우레탄 도장으로 하기 에는 쉽지 않은 도장인 것 같습니다.
- 작품명이 별똥별인데 야간상황이 별똥별 이미지에 맞는 조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야간조명을 주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되었던 작품 위치변경 건입니다.
- 위치변경 사유가 있습니까?
- 현재 위치에 공사가 들어가서 정문쪽으로 변경하는 안건입니다.
- 굳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면에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- 전후 위치를 보았을 때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
- 현재 위치가 정말 복잡하기는 합니다. 접근성이 좋은 정문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3번 작품 보겠습니다.
- 많이 본 작가의 작품이라 지루하긴 한데 가격을 봤을 때는 이 작품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.
- 가격대비 작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.
- 그럼 다음 작품보시겠습니다. 총 4개의 작품입니다.
- 한꺼번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 작품씩 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조감도를 보니 작품 규모에 비해 공간이 너무 커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.

- 환경과 조화를 봤을 때 돌 같은 형태여서 작은 사이즈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
- 16페이지의 명판 계획을 보면 알루미늄 판에 세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식되기 쉽습니다.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스테인리스에 파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
- 명판이 잔디에 매립되어 있는데 가려져서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높이가 지면과 흡사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-2작품을 보겠습니다.
- 작품의 전개방식이 다른 유명작가의 전개방식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.
- 유사작가들이 한국에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.
- 다른 유명작가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작품을 본적이 없어서 재밌게 보았는데 유명 작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
- 조명이 매립등으로 되어있습니다. 확산되지가 않는데 조명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. 가격이 7천만원인데 규모에 대한 것과 제작도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면 4-3작품을 보겠습니다.
- 작가 경력서를 보니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픽보다 실제 작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
- 말씀 없으시면 4-4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작품 설치위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작품은 가까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- 조감도만 봐서는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
- 설치장소에 대한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5-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
- 다른 작품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.
- 이런 컬러링이 가능한가요?
- 쉽지 않은 컬러링입니다.
-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도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- 심의 끝나고 설치에 대한 확인은 하나요?
- 설치 후 구청 건축부서에서 감리사가 감리를 통해 설치 확인 후 통보합니다.
- 심의 시 작품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확인사항을 조례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- 예전 서울시에서 주최한 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는 해당 심의위원 두 분이 가서서 재료 같은 것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.
- 시에서 주최한 사항이라 가능했던 사항 같습니다. 하지만 미술 작품심의 대상 건축주가 민간이라 그렇게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
- 대구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작품에 대한 색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도장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
- 작품설명서에는 10년 주기로 작가가 직접 도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주가 그것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5-2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
- 26페이지 보면 별모양 부분을 샌딩 마감으로 빛 반사를 최소화시켜 눈부심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샌딩마감을 해도 눈부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.
- 주거환경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 같습니다.
- 높이가 사람들이 올라타기 쉬운 높이인데 여름 같은 때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
- 4-4번의 작품과 5-2번의 작품 같은 경우 처음 보기엔 재밌을 것 같은데 4-4번 작품처럼 주변에 저러한 작품이 많이 있을 경우에 다른 부분이 많은 작품일 지라도 같은 작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5-2번 작품을 봤을 때에는 강아지가 큰 대자를 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보기 불편한 것 같습니다. 만약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런 작품이 누워있다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
- 조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공감합니다. 이 작품은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주거환경지역에 설치하는 작품으로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서 심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이런 논의를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각자 의견을 점수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.
- 4-4번 작품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.
- 4-4번 작품이 건물이 건설된 후에 설치될 것인데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- 분명히 건물에서는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

- 구조보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건축법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도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. 또한, 건축심의를 할 때 미술작품에 대한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.
- 벽이나 난간에 작품 등의 설치가 되려면 시공사가 구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. 옥상 같은 경우 풍압도 작용하기 때문에 작가와 시공사와 협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. 난간의 높이와 재료에 대한 법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구조보강, 난간높이 법규 외에 소방등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- 심의 후 건축부서에도 결과통보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통보해서 사용허가를 낼 때 검토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그럼 다음 5-4번 작품입니다.
- 우리나라 조각 작품 대세가 스테인리스재질로 만드는 것인데 석재의 작품을 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.
-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구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.
- 건물들이 다 현대적으로 지어져서 미술작품도 건물과 똑같이 화려한 작품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의 작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트렌드적인 것 같습니다.
- 조각에도 유행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유행이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.
- 석재를 사용한 작품 설치시는 하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작가며 건축주며 다들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문제는 충분히

고려했을 것 같습니다.

- 높이가 10m인 석재 작품인데 무게는 어느 정도 됩니까?
- 15톤정도 될 것 같습니다.
- 바닥면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바닥면적을 넓게 잡아 하중을 분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구조검토서가 있는 상태로 봤을 때 당연히 하중문제를 고려하였을 것 같습니다.
- 고려하였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시에서 접수된 안전사고 등이 있나요?
- 그런 사고들이 있으면 언론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.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은 다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.
- 그럼 하중 문제 말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? 없으시면 5-5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5-5번 작품은 두 분의 작가가 공동 작업한 작품입니다.
- 작품이라는 것이 꼭 그 장소에 이 작품이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- 하단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, 파이프를 두껍게 제작하더라도 구조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- 안전에 관한 문제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 그럼 6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재심작품입니다. 의견이 없으신가요? 없으시면 다음 7-1번 작품을 보겠습니다.
- 작품에 손길이 든 작품이지만 좌대를 제외하면 작품이 작은 것 같습니다. 경력은 많으신 작가 분 같습니다.
- 접근성에서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.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설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.

- 의견이 더 없으시면 다음 7-2번 작품을 보겠습니다.
- 정말 유명작가이긴 하네요.
- 유명작가의 작품이 곳곳에 설치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서 서울시에 설치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대세가 되면 안되겠지만, 몇 작품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.
- 의견이 더 없으시면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15개 작품 중 4-2번, 5-1번, 5-2번, 5-3번, 5-5번, 6번이 부결되고 나머지 작품이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